

내 영혼을 흔든 조그만 마음의 서가

느지막이 눈뜬 책읽기의 기쁨

장석남

시인

내게는 이상하게도 책을 사면 맨 먼저 그 지은 사람의 약력을 자세히 읽는 버릇이 있다. 좀 자세하게 나온 자필 연보 같은 것이 있으면 아주 흥미롭게 읽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글이란 게 모두 어느 정도는 사실 그대로 적는다 하더라도 미화된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다. 모든 지나간 일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말이다.

대개의 선배 문인들이나 이름난 글쟁이들의 연보를 보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춘기나 빠르면 그 이전서부터 책읽기에 푹몰렸다는 이야기들이다. 집 벽장이나 아버지, 삼촌 방에 쌓여 있었던 세계 명작들을 사춘기 이후에 뎀 문인은 그런 연보를 책에 달아놓을 만큼의 성공한, 또는 대접받는 문인들치고는 거의 없어보인다.

책읽기 연보에 대한 열등감

이 대목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관한 한 나는 열등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내가 좀 각별하다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남들의 연보를 훑어보는 버릇은 그 대목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다. 남의 연보를 지극스럽게 엿보는 심정은 한편으로 책을 지독하게 싫어했다거나, 사춘기 때나 문학청년 시절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고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 것이다. 왜? 그래야 동료들 하나 만난 안심에 그래도 문인 행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무모하고도 은밀한 내 무의식 때문일 것이다.

우리 집에는 책이 없었다. 할아버지 옷대까지 작디작은 고장이긴 하지만 우리 마을의 문(文)을 주관하던 집안이었던 우리 옷대는 이후 너무나 급격하게 몰락한 나머지 아버지대에는 상급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겨우 삼촌이 늦게나마 대학을 들어가 한방 가득하게 책을 사들여 공부했으니, 그마저 집안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급서를 하시는 바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책들은 마치 원수갚음이라도 하듯 할머니가 죄다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내 어린 기억에 의하면 간혹 벽장 깊은 곳에서 〈사상계〉 같은 잡지가 발견되어 호기심을 자극하곤 했는데, 아마도 그때 다 발견되지 않아 분서(焚書)를 면한 그런 책들이었던 듯싶다. 그래서 그랬던지 기억해

보면 쓸쓸하기 그지없었을 뿐인 환한 원시의 암흑세계에서 내 어린 시절은 고스란히 다 지나간 터였다.

그런 중에 서울에 있던 큰누님의 자취방에 놀러갔다가 비로소 이런저런 책이 꽃힌, 책꽂이다운 책꽂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 책꽂이엔 광민사에서 나온 노동관계책들이며 산업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룬 책들이 많았다고 기억된다. 그중에 내게 제일 먼저 책다운 책으로 읽혀진 것은 김동길이가 쓴 《링컨의 일생》과 멕시코의 혁명가 《관초빌라 전기》가 있었다. 내 나이엔 별반 어울리지 않는 책이었지만 그게 내가 맨 처음 읽은 책이라고 하면 너무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일까. 물론 미운오리새끼류의 동화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중에서도 멕시코의 독립 영웅 관초빌라의 생애는 너무나 강렬한 삶이어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소년의 마음을 들쑤신 책들

이후 어떤 연유에선지 나는 시를 써보겠다는 맘을 중학교를 마치면서 갖게 되었고, 그 기운 때문인지 우리집에 유일하게 있던 열두 권짜리 덤핑판 교양전집을 하나씩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중 생각나는 것이 남정현의 일기들 모음, 정연희의 소설 《少女》(이 소설은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든 내 나이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에로틱 장면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접어두고 두고두고 읽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유치환의 연애편지를 묶은 것들이다. 그중에서 나는 유치환의 연애편지 모음을 참으로 감동어리게 읽어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충격을 만나게 됐는데, 그건 이성복의 시집과 황지우의 시집을 선배들로부터 귀동냥으로 얻어듣고 구입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것은 소년의 마음 속을 들쑤셔놓는 불쏘시개 같은 책들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 전집판의 한국소설들을 빌려다가 다 읽었던 것 같다. 시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본격적으로 문학을 해보자고 한 것은 아닌 듯싶고 다만 게을렀고, 다른 학과 공부 싫었고 또 소설을 몇 읽은 영향인지 학과 공부는 참으로 공부로 인정할 수 없는 심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학교 다니기가 극도로 싫어지는 숨막힐 듯한 분위기에 휩싸일 때는 어디 절간 같은 데에서 평생

누군가가 밥만 먹여준다면 책이나 술을 읽으면서 햇빛이나 쬐며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기도 했다. 그것도 당시는 꽤 간절하게 마음을 움맨 소망이었다.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무슨 조갈증에 시달리는 세월이었다. 그래서인지 술을 참 많이도 하던 때였다. 그러면서 열심히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책 이름들을 받아 적기도 하고, 가끔 영광스럽게 접할 수 있는 선배 문인들로부터 여러가지 책들을 소개받기도 하면서 책에 대한 안목을 조금씩 넓혀 나갔다. 뒤늦게 도스토예프스키의 몇몇 중요 작품을 읽은 것도 그런 와중에서였고 그 흔한 《데미안》 같은 것도 그때서야 접한 칠삭둥이이니, 나중에 내가 다른 이름난 문인들의 연보를 재미 반 열등감 반 등속의 심정으로 엿보게 되는 것도 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카프카의 그것도 그런 와중이었다. 카프카의 그것은 가히 목직한 쇠술을 가슴에 들여놓은 느낌의 책들이었다. 그중엔 장 게옌노의 《빵과 자유》라는 책도 잊을 수 없는 책이다. 그 어느 겨울에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책이 있었는데 그건 박상룡의 《죽음의 한

게옌노, 썩 즐겨하지 않고, 그리고, 집중력이 없고, 다른 잡된 것들에 관심이 분산된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이나 될 것이며 또 무슨 독서에 대한 글을 밑에 깔고 뭉갤 수 있을까만 그래도 세상에서 크게 감격스러운 경험을 접한 것이 다름아닌 책이라는 매체이니 그 운명도 기이하다면 기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였다. 우리말과 우리 정서를 깊은 보습으로 쟁기질해놓은 그 노작은 내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예술작업이란 것이 참 외로운 일일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불러일으킨 그 소설의 분위기는 지금도 가슴 한편에 흥건하다.

내 마음의 서가를 채우는 책

또한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만나진 《최인훈 전집》은 아마도 내 삶의

코너웁을 가장 잘 코치해준 책이 아니었을까?

웬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저런 문학 창작품들이 충격을 준 것만큼 엘리야스 카네티의 《말과 권력》이라든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톨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 루카치의 《영혼과 형식》 같은 어렵게 읽어낸 그런 류의 몇몇 책들이, 눈물겨운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한 감동을 준 책들이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빠리 꼬문까지》나 님 웨일즈의 《아리랑》, 김사량의 《노마만리》 같은 책들은 딱딱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잡은 책들인데, 내게는 한 줄 한 줄이 즐거움 책읽기이기도 했지만 내 내부에서만 떨고 있는 삶을 향한 여러가지 망설임들을 나름대로 금긋고 판단하게 하는 즐거움을 이어주기도 했다. 그런 유의 책 중에서 어느 새벽녘을 전율스럽게 한 책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마르쿠제의 《에로스야 문명》이었다. 그것은 당시 내게 가장 거대한 화두로 여겨졌던 사랑의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 진정 나를 움직이게 한 책으로 평생 기억될 것이다.

내 게으르고, 썩 즐겨하지 않고, 그리고, 집중력이 없고, 이해가 빠르지 않고, 외국어에 대해 까막눈이고, 다른 잡된 것들에 관심이 분산된 사람이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이나 될 것이며(위에 열거한 게 거의 다 같다!) 또 무슨 독서에 대한 글을 밑에 깔고 뭉갤 수 있을까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감격스러운 경험을 접한 것이 다름아닌 책이라는 매체이니 그 운명도 기이하다면 기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름난 문인들의 연보를 보면서 매번 질려 남의 잔치집에 뭘 얻어먹으러 기웃대는 사람 같은 기분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사람치고는 불행 위에 행복이 걸터앉은 형국의 운명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남이 책 볼 때 나는 다른 것 본다는 위안도 억지지만 위안이므로 그 다른 보는 것이라도 살이 되고 피가 되게 깊이깊이 보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또한 지나간 내 이십대에서 그 초중반을 낭자하게 만든 책 《영혼의 자서전》이나 《그리스인 조르바》를 어찌 빼놓을 수 있으랴. 요 몇 년 전에 만난 시인 백석(白石)의 영혼 또한 내 조그만 마음의 서가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 같다. 왜일까. 어디 그뿐이랴!